

광주의 젊은 피 “우리가 희망이다”



K리그1 광주FC가 콜업한 우선지명 4인방(왼쪽부터 주영재, 신승훈, 엄지성, 장동찬)이 자신감 넘치는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광주FC 제공〉



광주FC, 우선지명 장동찬·엄지성·주영재·신승훈 콜업

고교 시절 만점 활약…‘차세대 준비된 스타’ 예약 “꿈꿔왔던 프로무대 신인 패기로 팀 도움되고싶어”

프로축구 광주FC가 우선지명 4인방을 콜업했다.

광주는 12일 “광주 U-18 금호고 출신 장동찬(FW·20·울산대)과 졸업 예정인 엄지성(FW·18), 주영재(FW·18), 신승훈(GK·18)을 콜업했다”고 밝혔다.

우선지명 4인방 중 만형 장동찬(181cm·73kg)은 빠른 스피드와 정확한 크로스가 장점인 측면 공격수다. 왕성한 활동량과 함께 적극적인 수비가담으로 측면 수비까지 소화 가능하다.

장동찬은 2016년과 2017년 백운기 전국고등학교축구대회 2연패에 일조했으며 2018 제73회 전국고교축구선수권대회 우승을 이끌기도 했다.

이후 울산대에 진학해 2020년 U리그 8권역 우승에 기여하는 등 맹활약을 펼쳤다.

루키 엄지성은 177cm·69kg로 날렵한 체격을 지

녔으며 폭발적인 스피드와 저돌적인 드리블 돌파가 장점이다.

2019 전국 고등학교 왕중왕전(우승) 4강전에선 약 80m를 달려 화려한 마무리를 선보이는 등 축구팬의 이목을 끌었으며, 2019 K리그 U18 챔피언십 우승과 베스트 영플레이어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또 2020 제 41회 전국 고등학교 축구대회 득점왕(9골), 2020 K리그 U18 챔피언십 득점상(5골), 2020 K리그 주니어 B조 득점상(9골) 및 최우수 선수상까지 수상하는 등 광주의 떠오르는 샛별로 큰 기대를 받고 있다.

소속팀에서의 맹활약으로 2019년 첫 태극마크를 달게 된 엄지성은 FIFA U-17 월드컵 5경기에 출장, 대한민국의 8강 진출에 기여했으며 지난해 U-19 대표팀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181cm·73kg의 체격을 지닌 주영재는 1대1 돌파

와 스피드, 크로스가 뛰어난 측면 공격수다.

또 득점력까지 두루 갖췄을 뿐 아니라 동료들을 활용한 이타적인 플레이에도 감명을 보인다는 평가다. 2019년 4월에는 U-17 대표팀 2차 국내훈련에 소집된 바 있다.

신승훈은 180cm/80kg로 골키퍼로선 작은 체격이지만 동물적인 반사신경과 슈퍼세이브를 선보이는 괴물 골키퍼다.

2016년 AFC U-14 동아시아지역 페스티벌에서 첫 태극마크를 입은 신승훈은 이듬해 U-17 대표팀에 소집, 2019 FIFA U-17 월드컵(8강)에서 팀의 주장으로 맹활약을 펼치기도 했다.

최근엔 U-19 대표팀에 발탁돼 국내훈련을 소화했다.

뿐만 아니라 2018 제 73회 전국고교축구선수권대회, 2019 K리그 U18 챔피언십, 2019 전국 고등학교 왕중왕전, 2020 K리그 주니어(B조) 등 각종 대회에서 GK상을 휩쓰는 등 장자 대한민국과 광주의 골문을 지킬 인재로 손꼽힌다.

우선 지명 4인방은 “유스 시절부터 꿈꿔왔던 프로 무대, 가슴이 벅차지만 그만큼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패기 넘치는 신인의 자세로 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한 목소리로 포부를 밝혔다.

/박희중 기자

광주시탁구협회장에 박석인씨 당선

“전문·생활체육 활성화 역량 결집”

박석인(60·사진) ㈜코스모스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가 광주시탁구협회장에 당선됐다.

박 당선인은 지난 9일 치러진 광주탁구협회 회장선거에서 경쟁자인 김태주 후보보다 많은 표를 얻어 신임 회장으로 당선됐다.

박 당선인은 선거과정에서 ▲실업팀 연고지 유지 이전 ▲남자고등부 팀 창단 ▲저변확대를 통한 꿈나무 선수 발굴·육성 ▲생활체육 동호인 활성화 ▲특별고문 결성을 통한 협회 재정 확충 ▲협회 임직원 단합 탁구대회 개최 ▲구탁구협회와 상생 발전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또 탁구인 자녀(차상위·소외계층 등) 장학금 지급, 해외교류전 추진, 탁구 전용체육관 추진 등도 임기 내 실전을 약속했다.

박 당선인은 “분골쇄신의 마음으로



광주 탁구협회의 위상 제고와 활성화를 위해 봉사하겠다”며 “광주탁구인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역량을 다해 광주 탁구발전에 헌신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현재 ㈜극단코스모스와 ㈜코스모스엔터테인먼트 대표인 박 당선인은 금호탁구교실에서 오랜 기간 동호회 활동을 해온 탁구인이다.

제7대 광주생활체육탁구연합회장과 전국탁구연합회 부회장, 전남대 경영대학원 일반경영학과장 총동창회장 등을 역임했다. 문화(2008) 체육(2014)분야 광주시장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박희중 기자

광주시바둑협회장에 박형택씨 당선

“저변 확대·영재 발굴 적극 전개”

박형택(69·사진) ㈜현대아미스 부회장이 제7대 광주시바둑협회 회장에 당선됐다.

광주시바둑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제7대 광주바둑협회장에 단독 입후보한 박 부회장에 대한 적격심사를 진행한 뒤 당선자로 결정했다.

해남 출신인 박 당선인은 광주시교육청 체육복지건강과장, 광주시체육회 이사, 전국초등핸드볼연맹 감사를 역임했다.

특히 박 당선인은 지난 40여년 간 학교와 교육청에서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체육교육 정책을 수립, 광주 학교체육과 생활체육의 수준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체육지도자로도 명성이 높아 광주핸드볼협회 전무이사와 부회장 재임 시절



전국 대회 우승은 물론 국가대표 배출 등의 성과도 올렸다.

이 같은 공로로 박 당선인은 지역 교육자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

하는 광주교육상을 수상했다.

박 당선인은 “바둑협회가 대한체육회 가맹단체로 편입되고 ‘바둑진흥조례안’이 2019년 광주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바둑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며 “이러한 긍정적 환경을 활용해 바둑 인구 저변 확대, 바둑 영재 발굴, 바둑 인프라 구축 등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박희중 기자

‘총상금 280억원’

2021 KLPGA 역대 최대 규모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2021시즌이 총상금 280억원의 역대 최대 규모로 펼쳐진다.

KLPGA 투어는 12일 “대회 수 31개, 총상금 280억원, 평균 상금 약 9억원 규모로 2021시즌 일정을 치를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시즌 총상금액 280억원은 기존 최대 규모였던 2019년 253억원보다 27억원 늘어난 액수다.

지난해는 1부 정규 투어 기준 269억원 규모로 시즌을 치를 예정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연초부터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KLPGA 투어에 따르면 대외 챔피언십(가칭), 동부건설 챔피언십(가칭) 등 이미 조인식을 마친 대회를 포함해 최소 4개의 신규 대회가 2021시즌에 열릴 예정이다.

또 11월 말부터는 대만과 베트남, 싱가포르 등 외국에서 3개 대회가 연달아 열릴 예정이다.

다만 이 대회들은 2021시즌 최종전 종료 이후 열리므로 2022시즌 대회로 편입된다.

시즌 개막전은 4월 8일 롯데스카이힐 제주에서 막을 올리는 롯데오픈이 여자 오픈이다.

올해 예정된 31개 대회 가운데 총상금 10억원 이상 대회도 10개를 넘어섰다.

총상금 10억원 이상 대회는 2011년 처음 열렸으며 1부 투어 대회당 상금은 5년 전 6억6천만원에서 올해 약 9억원으로 37% 상승했다.

/연합뉴스

김학범호, 올림픽 메달 ‘시동’

도쿄行 앞두고 새해 첫 소집 기량 점검 K리그 팀들과 연습경기 실전감각 키워

김학범호가 새해 첫 소집 훈련을 시작하며 2020 도쿄 올림픽 메달 획득을 향한 시동을 걸었다.

김학범 감독이 이끄는 남자 올림픽 축구대표팀은 12일 오후 강릉종합운동장에 소집돼 훈련에 돌입했다.

26명의 태극전사는 이날부터 다음 달 2일까지 강릉과 제주 서귀포에서 약 3주간 기량을 점검하고 조직력을 다진다.

강릉에서는 훈련에 집중하고 19일 서귀포로 이동해 26일 성남FC, 30일 수원FC, 내달 2일 대전 하나 시티즌 등 K리그 팀들과 연습 경기를 치르며 실전 감각을 끌어올린다.

7월 23일 개막할 예정인 도쿄 올림픽까지 반년여 남은 가운데, 이번 소집훈련은 김학범호가 장기간에 걸쳐 집중력 있게 손발을 맞출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번 훈련 뒤 도쿄 올림픽까지 확실하게 잡힌 소집 훈련 일정은 오는 3월 A매치(국가대표팀간 경기) 기간뿐이다.

이후 6월에 한 차례 더 소집훈련이 치러질 수도 있으나 아직 유동적이다.

따라서 김학범 감독은 이번 소집훈련에서 사상 2번째 올림픽 메달 획득 도전을 위한 청사진을 완성해야 한다.

메달 사냥 도전에 나설 태극전사 명단의 대략적인 윤곽을 결정하고 전술적 밑그림도 그려야 한다.

선수들에게도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충분히 자신

의 능력을 김학범 감독에게 보여줄 좋은 기회다.

이번 소집 훈련에는 국제축구연맹(FIFA) 클럽월드컵을 앞둔 울산 선수들과 상무 임대를 준비 중인 조규성(전북) 등을 제외하고 K리그와 일본 J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이 참가한다.

2020시즌 프로축구 K리그1·2에서 ‘영플레이어상’을 거머쥔 송민규(포항)와 이동률(제주)이 나란히 발탁됐다.

지난해 9월 남자 A대표팀과 스페셜 매치를 앞두고 김학범호에 처음 승선한 송민규는 3회 연속 소집됐다.

이동률을 비롯해 박태준(성남), 최준(울산)은 처음으로 발탁됐고, 전세진(김천 상무)은 1년여 만에 김 감독의 부름을 받았다.

축구협회는 소집 기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손흥민이 지난달 7일 열린 아스널과의 경기에서 선제골을 터뜨린 후 환호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손흥민, 아스널戰 감아차기

토트넘 ‘12월의 골’ 선정

4개월째 ‘이달의 골’ 독식

손흥민(29)이 소속팀 잉글랜드 프로축구 토트넘이 뽑은 ‘이달의 골’ 주인공으로 4개월 연속 선정됐다.

토트넘은 손흥민이 지난달 7일 아스널과의 EPL 경기에서 터뜨린 감아차기 선제골이 홈페이지 팬 투표에서 ‘12월의 골’로 뽑혔다고 12일 밝혔다.

이로써 손흥민은 토트넘 선정 ‘이달의 골’을 4개월째 독식했다.

앞서 손흥민은 지난해 9월 사우샘프턴과의 EPL 2라운드 선제골, 10월 버리와의 EPL 6라운드 해딩 결승 골, 11월엔 맨체스터 시티와의 EPL 9라운드에서 기록한 선제골로 ‘이달의 골’ 상을 받은 바 있다.

토트넘 구단은 “손흥민의 골은 북런던 derby 역사상 가장 대단한 골 중 하나로 기록될 것이기에 이런 지지를 받은 것이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신진서, 생애 첫 응씨배 결승 진출

한국 바둑의 최강자 신진서 9단이 생애 처음 응씨배 결승에 진출했다.

신진서는 12일 온라인 대국으로 열린 제9회 응씨배 세계프로바둑선수권 준결승 3번기 제2국에서 중국 자오천위 8단에게 277수 만에 백 1점승을 거뒀다.

준결승 3번기에서 2-0 완승을 거둔 신진서는 결승에 올라 ‘바둑올림픽’이라고 불리는 응씨배에서 첫 우승에 도

전했다.

신진서의 결승 상대는 건너편 준결승에서 맞붙은 중국 세커 8단과 일본 이치리키 료 9단의 승자다.

이로써 한국 바둑은 응씨배에서 9회 연속 결승에 오르는 기록을 이어갔다.

앞선 8번의 결승에서는 조훈현·서봉수·유창혁·이창호·최철환 9단이 우승했다.

/연합뉴스